

전남권 의대 신설 '단일대학' 공모... '혼란' 가중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대에 의과대학 신설돼야" 호소 전남서부권 유인도서 41% 밀집... 전국 최고 의료 취약지

전남도가 전남권 '통합의대' 카드를 꺼낸 지 5개월 만에 공모방식 선정으로 '단일의대' 유치 입장을 바꾸면서 지역 사회에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방식을 '단일대학' 공모로 추진하겠다는 대도 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에 박홍률 목포시장은 "최근 전남도의 통합의대 신설 추진에 맞춰 공모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했으나 도의 입장이 변경된 만큼, 전국 최고의 의료 취약지인 전남 서부권의 거점대학인 국립목포대에 의과대학이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은 "전남 서부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1%가 밀집된 지역이고 6

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7.5%나 될 정도로 고령화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진행된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취약한 지역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무려 5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서부권의 인구소멸을 막고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남도의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의료와 경제가 열악한 서부권 국립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며 "왜 국립대 부속병원이 공공기관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라고 공공

필수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목포시는 2019년 교육부 주관으로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행, 대학병원 설립 B/C 1.7, 생산유발효과 2조4천355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3천355명이라는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상태다.

박 시장은 "정부에서 전국의 수많은 대학 중 특정 대학을 지정해 용역을 실시한 이 사례는 왜 국립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생명의 가치는 누구나 동등하며 섬 지역은 취약 지역이기 때

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에 대한 기회가 박탈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목포지역에서는 전남도의 단일의대 공모방식 관련 외부 기관에 의뢰해 결정하려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곳곳에서 갈등의 소지가 커지면서 지역 정치권과 대학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전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추진은 공모 방식이 아닌 목포의대 지정이 마땅하며, 향후 목포의대 설립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박명기 국회의원(목포시) 후보는 "민주당과 김영록 지사는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목포대도 "공모 방식이 자칫 서부권 주민들의 34년 의대 유치 숙원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도민들의 생명권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목포청년100인포럼도 "전남 국립의대는 반드시 목포대에 대학병원은 목포시에 설립돼야 한다"며 "김영록 지사는 공모라는 핏수로 난제를 넘어가려 하지 말고 군공방 무안공방 이전처럼 의대는 목포대라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군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기본 계획 용역을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 완료했다. 사진은 국립난대수목원 전시 온실 투시도. <완도군 제공>

완도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속도낸다

4개월여 앞당겨 기본 계획 용역 완료... 1천475억 투입 레이크 가든 센터·모노레일·전망대 등 차별화된 시설 구축

완도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기본 계획 용역이 예정보다 4개월여 앞당겨 완료돼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도립수목원으로 운영 중인 국내 최대 난대림 완도수목원 부지(381ha)에 국비 1천475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 중 기본 계획은 사업 추진 방침과 콘셉트, 구상, 배치 등 전반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절차로 사업 성패와 연결되는 중요한 단계다.

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 산업과 연계

돼 지역에 큰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용역 착수 단계부터 세부 사항 등을 신중하게 논의해 산림청에 건의해왔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난달 5일 산림청에서 '국립난대수목원 기본 계획 수립 완료 보고회'가 개최됐다. 기본 계획에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목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방문객 공간인 '레이크 가든 센터', '모노레일', '난대 숲과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트리탑 데크로드', '전시 온실' 등을 구축해 타 수목원과 차별

화를 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청과 전남도, 완도군은 곧바로 기본 설계에 착수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국립난대수목원은 수목원의 기능을 넘어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가 및 지역 관계자들과 조성 방향을 공유해 국립난대수목원이 명품 수목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철 군수는 "기본 계획을 보니 그동안 실무진의 많은 고심과 노력이 담겨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완도군이 웰니스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큰 축을 맡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더 많은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신안 임자도서 해변승마대회 개최

12-13일 대광해변서... 임자 톨립축제 기간

신안군은 3일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임자면 대광해변에서 제3회 신안 임자 해변승마대회(사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폭 200m, 길이 12km에 달하는 임자도 대광해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다양한 행사와 지구력 장애물 경주가 열리고, 방문객에게는 승마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회는 대한승마협회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신안군, 국민체육진흥공

단의 후원을 받아 신안군의 대표 축제인 임자 톨립 축제 기간에 맞춰 개최되며,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목표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승마인이 신안 임자도를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승마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섬 지역 학생들의 승마 체험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무안군, 미용업소 위생교육 실시

무안군은 3일 "지난 2일 무안읍 사무소에서 미용업 영업주 8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생교육은 기존 미용업 영업주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번 교육은 대한미용사회 무안군지부가 진행했으며, 공공위생관리 법규 교육, 소양 교육, 기술 실습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사진>

또한 미용업 대상 착한가격업소 신청 홍보 안내 및 개인 서비스업 분야 물가안정을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김성철 무안군 보건소장은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을 체험하고 동업자 간 경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지역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귀농 전 먼저 농촌서 살아보세요"

해남군, 농촌살이 3개월 체험 기회 제공

해남군은 3일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지역에서 미리 거주하면서 농촌을 이해하는 '해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마을에 머물며 영농실습 및 지역민들과의 교류, 지역 탐방 등 귀농귀촌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사진>

또한 주거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 참여 시

연수비 30만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프로그램은 빼어난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현산면 백포마을의 풀네움 힐링캠프에서 운영된다.

참가 대상은 농촌을 이해하고 마을과 화합할 수 있는 19세 이상 도시민으로, 구직급여 수령자, 가족단위 참가자, 귀농귀촌 교육 10시간 수료자를 우선 선발한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 누

리집을 통해 신청 후 우선 또는 영상 면접을 거쳐 우선 순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남군은 참가자들이 체류하는 동안 해남 지역을 더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남 소개 책자, 관내 관광지 무료 이용권, 체험형 지원센터 입주 우선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에서 살아보기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농업과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농촌 이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강진 '마량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선정

100억 투입... 정주여건 개선·청년인구 유입 목표

강진군이 2024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70억 원을 확보했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사업은 1988년 준공해 운영 중인 노후 농공단지인 마량농공단지에 국·도비 7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마량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개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이다. 강진군은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입주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설과 환경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문화센터는 이미 선정된 해양수산부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 지역의 주거공간과 문화·여가 시설 등을 갖춘 청년 친화적 인프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립 구상안은 1·2층에 치유실, 정촌

카페, 체력단련실, 휴게실, 회의실 등을 배치하고 3층에는 주거형 원룸 12실과 쉼터를 배치했다. 특히 주거형 원룸을 신설해 원거리 타지역 출퇴근 근로자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해 청년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강진군에서 진행 중인 미(美) 프로젝트와 연계해 농공단지 내 도로 정비와 조형물 설치, 녹지공간 확충, 야간조명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광군, 폐암·전립선암 검진비 지원

암 환자 치료비 절감 중점

영광군은 3일 "지난달부터 군민의 건강증진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주민 780명을 선정해 폐암 180명, 전립선암 500명 검진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폐암,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치료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소



(66원 이하)에 해당하는 주민이다.

검진 대상자는 40~70세 중 폐 부위에 이상 있거나, 매일 1갑씩 2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주민이며,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사진) 비용 11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질환검진인 전립선암은 50~70세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 특이항원검사(PSA) 비용 3만1천 원을 지원한다.

단, 국가암검진(폐암), 재난적 의료비, 직장인 건강검진 등 유사 사업을 통해 해당 암검진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50-4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동규 기자